

천도교·유교·민족종교협의회

시행일 : 2018.9.27

수신 : 김희중 KCRP·종지협 대표회장

참조 : KCRP 사무국, 종지협 사무국

제목 : 종단 차별화에 대한 해명 요구

1. 대한민국 종단 협의체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KCRP와 종교지도자협의회 사무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평양에서의 세 번째로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결과는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다가왔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협의회 3개 종단은 금번 방북과 관련하여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3. 지난 9월 18일~20일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행사의 정부 수행단으로 초청한 종교계에는 엄연히 정부에서 인정받고 있는 7대 종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4개 종단만 참석시킨 배경을 KCRP와 종지협 차원에서 항의와 해명을 촉구해야 하나 그러지 않고 있음에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4. 또한 방북 전 9월 14일 정부에서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통하여 7대 종단 수장과 오찬 자리를 마련해 이 자리에서 종교계에서는 7대 종단이 다함께 수행단으로 참석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음에도 결과는 4개 종단만 참석하였습니다. 이에 KCRP 대표회장은 7대 종단이 함께 하지 못한 사항을 강력히 정부에 항의하고 그 경위를 먼저 7대 종단 수장단과 논의를 하는 것이 먼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상의없이 4개 종단만 참석하게 된 것은 7

대 종단의 화합과 평화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5. 특히, 내년 3.1절 100주년기념행사와 개천절 민족공동행사에 주도적인 입장의 종교이자 대표적 한국종교인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를 배제하는 것은 그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6. 그동안 대한민국 대표 종단인 7대 종단은 KCRP(한국종교인평화회의), 종교지도자협의회 2개 종교협의체 기구를 통해 종단 간 화합과 평화를 도모해왔지만, 금번 방북과 관련해 3개 종단을 배제한 것은 그동안 종교간 평화와 화합에 앞장선 3개 종단의 노력과 수고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7. 이에 김희중 KCRP·종지협 대표회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는 바이며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8. 09. 27.

유 교

김 영 근 성균관장



천 도 교

이 정 희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박 우 균 회 장

